

보도자료

2011년 2월 14일(월)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통신정책국 통신이용제도과 최성호 과장(☎750-2550)
통신이용제도과 진상환 주무관(☎750-2557) gallope@kcc.go.kr

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

- 기본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 부담을 완화한 청소년 요금제 출시 -

방송통신위원회(이하 방통위)는 2월 14일 SKT가 인가 신청한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해 이용약관을 인가하였다고 밝혔다.

이번 요금제는 방통위가 서민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유도해 온 것으로 동 요금제 조기 출시에 따라 청소년 스마트폰 요금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.

이번에 출시될 청소년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는 3만5천원 이상의 일반 스마트폰 요금제에 비해 기본 이용료가 2~3만원대로 저렴하고 데이터 혜택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. 또한 과도한 요금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요금상한 기능이 있으며, 음성과 영상, 데이터를 청소년이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다. 이 요금제는 상품별로 2월중 또는 3월중에 출시될 예정이다.

방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 끝.